

## 여성의 원함과 그 상징언어의 인지적 모형 분석\* -“엘렉트라” - 쏘포클레스, 프로이드, 그리고 21C -

윤 현 섭†

강원대학교 심리학과

모든 인간의 원함은 생존을 위한 기회와 자본이다. 여성도 자신의 삶을 위한 기회와 자본을 원한다. 2W. 오이디프스와 엘렉트라의 언어는 이러한 삶의 기회와 자본을 얻기 위한 절규에 가까운 언어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들의 언어를 분석하면서, 인간의 2W는 항상 직선적 상승이 아니라, U-형 곡선임을 알게 된다.

주요어 : 여성의 원함의 수학적 곡선

---

\* 본 연구는 강원대 기성회 연구년(2003) 연구비로 수행되었음.

† 교신저자 : 강원대학교 심리학과, 강원도 춘천시

E-mail : hsyun@cc.kangwon.ac.kr

인간은 원함을 모두 가지고 있다. 인간은 그 원함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기회를 얻고, 그 기회로 삶의 표현의 공간을 채워 나가는 것이다. 인간은 남성과 여성으로 양분됨은 과학적 사실이며, 철학적 이론이다(Kant, 18C; 1965). 그리고 물론 여성은 여성인 동시에 또한 인간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면 여성도 역시 원함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삼단논법으로 추론할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논리적 추론은 眞(True)임이 플라톤의 변증적 논리(Platonic Dialectics)로 증명된것이다. 즉 인간의 생물학적 범주구조가 아닌, 인간이 가장 상위범주인 서구사상, 즉 인간이 신 다음으로 가장 궁극적 존재라는 범주논리가 플라톤적 이데아의 범주 논리이다. 본논문은 인간의 원함이라는 범주적 명제(Categorical Proposition)로부터 출발하여서, 인간의 범주에 속하는 여성도 원함을 가지고 있다는 예증적 명제(Exemplar Proposition)를 추론으로 증명하고, 이러한 논리수학적으로 도출되는 여성의 원함의 이야기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즉,

범주적 명제: 인간은 원함을 가지고 있다(경험적 증명 완성단계: 즉 인간이 원함이 없다면, 인간은 호흡이나 맥박이 필요하지 않다).

예증적 명제: 여성 혹은 남성은 생명의 원함을 가지고 있다(다양한 학문대상).

여성연구에서 이론적 모형이 부재함을 이야기하는 지적이 많다.(Hein과 ,Korsmeyer, 1993) 필자는 발전생산적 여성심리학이 되기위해서 하나의 이론적 모형을 시험해 보려고 하며, 특히 미학, 논리학 그리고 심리학적 사고를 조화

롭게 해보고자 한다(Har-Mustin et al. 1998).

인간의 원함은 다양하게 표현될수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은 상징언어로 표현되는 여성의 원함의 이야기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인간, 그리고 여성의 원함의 무의식을 파헤친 그리스 비극, “엘렉트라”(쏘포클레스, BC5)를 고전적 예로 인용하면서, 하나의 지식이론, 즉 인간의 모든 이야기는 언어로 나타나며, 여성의 원함의 이야기도 언어로, 특히 상징언어로 나타난다는 전제 아래에서, 쏘포클레스와 보다 현대적인 경우를 몇 켤레 분석한다. 그리고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인지적 속성으로 여성의 원함을 모형화 하려고 한다. 이러한 인지적 모형화의 시도는 인간, 여성, 그리고 그들의 원함은 상징언어로 표상될때 이미 원함의 뜨거운 입김과도 같은 실상은 사라지고 사고적 의식으로 법칙화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자 하기 때문이다. 즉 인간의 가장 끈끈한 본질, 즉 원함이라는 인간의 본질도 언어의 상징을 뚫고 나가면서 거친 호흡은 가라앉으며 잔잔한 바람과도 같은 시원한 인간의 知의 자아를 찾아가게 되는 것이다(윤현섭, 1997).

## 인간, 여성 그리고 그들의 원함

인간은 원함을 가지고 있다. 인간의 원함의 특성을 가장 먼저 이야기한 학자는 고대 그리스의 철인 플라톤이다. 플라톤은 인간의 정신은 두뇌, 심장, 그리고 내장에 있다고 그의 유명한 “공화국(Plato, BC5; 1993)”에서 이야기한다. 인간의 원함은 두뇌 혹은 심장이 아닌, 바로 내장에 속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플라톤은 그러한 속성이 지배하는 인간의 이미지

로 무사의 이미지를 이야기한다. 그후 독일의 크리스찬 볼프는 인간의 의식을 다음의 3가지 유형으로 분석한다: “생각한다(denken), 느낀다(fühlen), 원한다(wollen)” 그후 칸트는 그의 인식론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생각한다(Ich denke)”라는 인간의 의식이 인간의 모든 인식행위에 전제가 됨을 그의 “순수이성비판”에서 이야기한다.(Kant, 1724-1804; 1998) 이러한 고전적 이론에 근거해서 윤현섭(1997; 1996; 1994)은 인간의 의식, 즉 자아의 3범주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나는 생각한다(I think), 나는 느낀다(I feel), 나는 원한다(I want)”.

인간이 원함을 가지고 있음은 인류의 기원으로부터 시작된다. 인간이 원시시대부터 생존의 원함을 가지고 있었음은 인류학에서 이미 증명된 사실이다. 본 논문은 사실을 이야기하는 다음의 차원에서 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인간은, 즉 모든 인간은, “원한다(want)”라는 언어를 자기의 언어로 소유한 그 순간부터 인간은 원함을 가지고 있음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다. 한글도 영어도 독일어도 흔히 “원한다”라는 어휘를 가지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원한다”라는 단어에 반드시 “나(I)”라는 주어를 결합하여, 단순히 “원한다”라고 하기 보다는 “나는 원한다”라는 표현을 하나의 이론적 명제로 한지 10년이 꼭 지나고 있다. “나는 원한다!!” 그러면 다음을 질문할수 있다. “무엇을 당신은 원하는가?” 인간의 원함에는 무한하며, 진시황제의 불로장생의 원함은 동양의 고전적 원함이라는 사실을 떠나서, 인간은 영원한 생명을 원하는 원함이 항상 먼저 나타나는 것이다. 기독교의 “영생” 혹은 “부활”의 언어는 영원한 생명을 원하는 인간의 기도이기도 하다. 필자는 모든 예를 다 열거하기 전에 다음을 이론적 명제로 제시한다.

인간은 영원한 생명을 원한다. 인간이 원하는 그 영원한 생명은 바로 인간은 **善(the good)**을 원하는 것이다. 왜냐면, **善**이 **惡**을 지배하며, **善**이 **惡**보다는 보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음을 인간은 알기 때문이다. 즉, 인간은 ‘나는 **善**을 원한다(I want the good)’라고 이야기한다.

모든 인간이 원하는 바, 그 자체로 잘못 인식되고 있는 자본과 기회는 바로 인간이 **善**을 원하고 소유하기 위해 필요한, 보다 수단인 것이다. 예수가 악마에게 시험을 당하실때, “**빵**”은 물질이다. 악마는 인간이 “**빵**”, 즉 물질이 없으면 악해질수 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빵**으로 시험한 것이다. 예수는 “**빵**”이 손에 없었지만, 악마에게 꺾이지 않았다. 즉 **빵**을 위해서 악을 선택하지 않았다. 신을 따르는 인간은 예수를 닮아 간다. 그러나 인간은 “**빵**”이 있으면, 악을 이길수 있고 보다 강력한 힘을 얻을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연구하고 전달해주는 경제학, 그리고 사회학의 원칙을 인간은 교육을 통해서 배우고 자신의 지식으로 가지고 있다. 직선적으로 이야기하면, 인간은 다음을 이야기 한다는 것이다:

인간은 **善**을 원한다. 그러나 **善**을 나의 의식, 즉 자아의 본질로 하기 위해서 나는 생존, 삶, 혹은 존재를 위한 기회와 자본을 원한다.

앞으로 필자는 인간이 원하는 이러한 기회와 자본은 **善**을 얻기 위한 수단이라는 전제를 항상 암시하면서 논증을 해 나가고자 한다.

인간은 여성을 포함한다. 인간은 남성도 포함한다. 인류의 문화사에서 인간은 항상 남성

이 대표하고 이끌어 왔다고 하지만, 그러한 남성을 잉태해서 양육한 여성의 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2천5백년 이상 묻혀 있다고, 20세기 여권운동을 시작으로 여성의 힘이 인류 문화에 알려지기 시작하고 있다. 역사에서 분석되는 남성 영웅은 거의 고대로 부터, 전쟁, 정치 영웅 이미지, 그리고 근대에서부터 학문과 예술적 인물 이미지로 변하고 있다. 필자는 역사적 사실의 움직임을 예리하게 파헤치는 서구 고대 비극 문학에 나타나는 주인공들, 예를 들어서 남성의 영웅 이미지, 오이디프스왕 혹은 여성의 이미지 엘렉트라를 택하면서, 쏘포클레스가 창조한 오이디프스와 엘렉트라 언어를 분석하고자 한다. 물론 필자의 이론, 즉 “모든 인간은 원한다, 그리고 여성은 인간이기 때문에, 여성도 원한다: 물론 모든 여성은 좋을 자신의 의식으로 동화하기 위해서 모든 남성들과 같이 자본과 기회를 원한다” 라는 명제는 언제나 필자의 분석과 논의의 대상으로 살아 있다는 것은 본 논문이 끝나는 순간까지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

### 인간 보편의 기회와 자본 그리고 여성의 2W

인간은 생명체이며, 동시에 자신의 생명을 보존해야 하는 의무와 권리를 가지고 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영원법(the eternal law)은 생명보존의 법이다(윤현섭, 1993). 필자는 생명보존의 “권리와 의무”라고 하기 보다는 “의무와 권리”라는 개념적 순서를 가지고 있다. 이 개념적 순서의 법칙은 다음을 법칙적 계산(the lawful computation)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문장의 계산-I** (Sentence Computed-I): 자신의 생명은(the life of the self) 나의 생명(my life)이기 때문에 자신(the self)은 나 자신에게(to myself) 자신의 생명을 보존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의무는 선행적인 그리고 보다 원칙적인 진리, 즉 ‘나’라는 존재는 모든 경험에 우선한다는 명제를 포함한다.

왜냐면, ‘나’라는 존재가 경험의 결과이라면, 그러한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선행적 존재가 부재함을 말하는 것이며, 이는 모순이기 때문이다. 즉, ‘나’라는 선행적 존재가 부재한 상태에서는 어떠한 경험도 불가능함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문장의 계산-II** (Sentence Computed-II): 따라서 ‘나(I)’는 자신(the self)에게 ‘나’의 생명을 보존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의무는 ‘나(I)’가 ‘자신(the self)’에게 가지고 있는 법칙적 의무이다. 칸트가 이야기하는 ‘자신에 대한 도덕적 의무’와는 병렬적 법칙성으로 동일하다.

**문장의 계산-III** (Sentence Computed-III): 이러한 생명보존의 의무를 다한 다음으로 인간은 생명보존의 권리를 사회와 국가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시말하면, 생명보존의 의무는 ‘나’가 ‘자신’에게 가지는 의무이며, 생명보존의 권리는 ‘나와 자신’이 사회와 국가에게 요구하는 권리이다.

위의 명제적 계산법칙을 따라서 인간 보편의 기회와 자본은 당연히 인간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기회와 자본이어야 한다. 사회경제적 사실로서 인간은 생명보존을 위한 기회로 일할 수 있는 기회, 즉 직업을 가질수 있는 기

희를 가지고 있어야하며, 그리고 자본으로 의 식주에 관련된 자본, 즉 삶을 이끌수 있는 필수적 물질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직업과 물질에 대한 인간의 원함은 역사적으로 반드시 모든인간에게 주어진 것을 아니었다. 실업으로 인간이 고통을 받는 사실은 역사적 그리고세계적 현실이었으며, 물질의 빈곤으로 가난과 기아와 질병으로 인간이 죽어가는 현실은 정치적 이념을 떠나서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 그러나 일의 기회와 물질은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 조건이다. 따라서 모든 여성에게도 일과 물질은 반드시 필요한 원함(want), 즉 “2W”임을 이제 우리는 알아야한다. ‘나’를 전제로 하는 모든인간, 그리고 여성은 ‘자신’에게 생명보존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반드시 일할수 있는 기회와 물질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는 다음에서 분석되는 세 가지 이론적 개념, 즉 “나(I)”, “자신(the self)”, 그리고 “생명보존(the preservation of life)”이 어떠한 범주적 차원(Categorical Dimensions)에서 이야기 되는가에 따라서 질적 양적으로 상이한 예(exemplar)가지고 있다.

먼저, “나”, “자신” 그리고 “생명보존”의 개념을 분석한후에, 인간보편 그리고 인간보편 범주안에서 여성을 어떠한 2W를 가지고 있는가 이야기해 보고저 한다. 필자는 심리학, 즉 인간과학을 이야기하는 견지에서 필자의 논증을 위해 선택한 자료는 고전적 인간들의 “언어적 말(linguistic speech)”이며, 이러한 언어분석을 통해서 여성의 2W를 그리고 그 2W의 인지적 모형을 추론해 보고저 한다.

### 나, 자신, 그리고 생명보존의 언어분석 모형

표현된 언어적 개념들의 순서대로, 우선 필자가 이야기하는 “나(I)”의 범주적 차원, 그리고 “자신(the self)”,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명보존”의 범주적 구조를 분석해 보고저 한다. 물론 본 논문의 접근적 특색인 언어분석을 통한 분석이며, 샘플로 사용된 언어는 그리스 비극에서 찾아본 것이다.

#### “나(I)”의 6단계적 분석

필자는 다른 장소에서 인간을 포함한 생명체의 변화발달 단계로 운동의 6단계를 제시한 바 있다(윤현섭, 1998;1999-a; 2002). “나”의 분석적 차원과 함께 제시한다:

1단계: 천체의 운동(the Celestial Motion): 육체적 키 크기

2단계: 삶의 운동(the Motion of Life): 생활문화 획득

3단계: 감각-정서적 운동(the Motion of Sense-Emotion): 즐거운 시간을 위하여

4단계: 사회의 운동(the Social Motion): 사회생활 참여

5단계: 문화의 운동(the Motion of Culture): 지식문화 창조

6단계 : 정신의 운동(the Motion of Mind): 조화된 자아완성

필자의 위의 “나”의 분석모형은 물론 검증이 되어야 한다. 필자는 지금 그 검증을 고대 그리스 문학의 언어로 분석적 시도를 해보고저 한다. 운동의 이론의 법칙은 다음과 같이 간단히 이 자리에서는 이야기 한다: 우주의 대폭발로 시작된 태양계에서, 생명, 감각-정서, 그리고 사회집단의 출현, 사회만으로 충족될 수 없는 인간의 문화지식 창조의 단계, 그리고 궁

극적으로 정신의 세계를 택하는 인간의 시작과 완성이 있는 영원한 인간의 발전적 법칙을 말한다. 이 자리에서 “나”의 분석모형을 검증하기 위해서 썬플로 채택된 언어는 쏘포클레스의 오이디프스와 엘렉트라 이야기로 많은 지식인들은 익히 알고 있으나, 그러한 비극적 인간들의 “나”의 본질을 아직 충분하게 알지는 못한다. 필자가 선택한 그들의 대사는 아래와 같으며 영어로된 표현을 사용하며, 인간보편과 여성의 언어분석을 위해서 남성, 여성의 이야기를 동시에 제시분석한다.

**오이디프스의 이야기 - I**

오이디프스: I tell you, then, I have endured  
Foulest injustice; I have endured  
Wrong undeserved; God knows  
Nothing was of my choosing.

합창: And the event?

오이디프스: Shamefully wedded-tied for my  
city's sake  
To a marriage of infamy, unbeknown!

합창: Your mother, as is aid,  
The partner in this bond of shame?

오이디프스: To hear it suttered is a death to me.  
And more - These two - are mine -  
(Oedipus at Colonus, p87; Sophocles, BC5; 1974)

**오이디프스의 이야기 - II :**

합창: Your father?

오이디프스: Must you strike again? More agony?

합창: You killed him?

오이디프스: Yes, with justice.

합창: Justice?

오이디프스: Yes. You shall hear.  
He whom I killed

Had sought to kill me first. The law  
Acquits me, innocent, as ignorant,  
Of what I did.

(Oedipus at Colonus, p.88: Sophocles, BC5; 1974)

**엘렉트라의 이야기 - I :**

엘렉트라: But let me tell you hat you sloew  
him not

For justice, but perverted by the lure  
Of a base wretch, who is your  
consort now.

(Electra, p.20: Sophocles, BC5; 1995)

**엘렉트라의 이야기 - II :**

클라이넴네스트라 (within): O, I am smitten!

엘렉트라: If thou beest a man,  
Strike twice!

클라이넴네스트라 (within) : Again!

엘렉트라: O for Aegisthus too!  
(Electra, p.51; Sophocles, BC5; 1995)

오이디프스 이야기-I은 오이디프스가 자신의 결혼은 자신의 선택이 아니었으며, 국가를 위한 선택이었음을 이야기 하면서, 자신은 어머니와 결혼하는지를 알지를 못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오이디프스 이야기-II 는 자신이 죽인 인간, 즉 오이디프스의 아버지는, 오이디프스 자신을 먼저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자신은 정의에 의한 선택을 했음을 강조하며, 자신은 법에 의해서 죄가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엘렉트라 이야기-I은 자신의 어머니가 아버지 아가멤논을 살해한 것은 정의가 아니며 천한 동물에게 끌려서 살해한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이야기-II는 자신의 동생 오레스터스가 어머니를 칼로 칠때, 한번더 두 번을

칼로 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우선 필자가 이야기하는 “자아(the self)”의 정의를 제시하면서 그들의 언어의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자아(the self)”와 4단계 조작적 운동법칙: 오이디프스와 엘렉트라 이야기

필자는 다른 장소에서 인간의 발달적 법칙으로 다음의 4범주적 단계를 이야기한바 있다 (윤현섭, 2001):

1단계: 태초(the Beginning): 오이디프스 자본과 기회:엘렉트라 자본과 기회

2단계: 토대운동(the Base Motion): 억압박탈된 오이디프스: 엘렉트라 의 성취

3단계: 창조(the Creation): 오이디프스의 성취: 억압된 엘렉트라

4단계: 전진운동(the Onward Motion): 오이디프스의 자아: 착취된 엘렉트라

쏘포클레스는 오이디프스의 주어진 자본가 기회, 즉 테베의 왕자의 신분을 이야기한다. 오이디프스의 왕자의 신분은 주어진 자본과 기회이지만, 오이디프스의 차별화된 자본과 기회이다. 동일한 논리로 엘렉트라 역시 미케네의 공주로서 오이디프스와 같이 주어진 왕족으로서의 자본가 기회가 있다. 이러한 자본가 기회로 정의된 오이디프스와 엘렉트라 의 “나”는 자신의 자아(the self)를 발전 시키는 의무를 수행하고자 한다. 그러나 오이디프스는 유아일때, 이미 테베의 정치적 음모로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인간이 되었다. 그러나 오이디프스는 두 번 부모를 떠나야하는 운명, 즉 생부모와 양부모를 떠나는 운명,을 극복하고 스펅크스의 수수께끼를 풀어내는 성취를 한다. 문제는 바

로 이전에 운명의 삼각로에서 자신의 생부 라이우스(Laius)를 살해하게된 전력이 있다는 것이 었다. 이를 테베는 인정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오이디프스의 창조는 부도덕한 자아의 성취로 판단을 받게 되는 것이다. 다음의 판단을 참고하면 분명해진다(크레온이 오이디프스 왕을 평가하는 대사):

크레온: This, then, is the answer, and this the plain command  
Of Phoebus our lord. There is an unclean thing,  
Born and nursed on our soil, polluting out soil,  
Which must be driven away, not kept ot destroy us.

(오이디프스왕, p.28; Sophocles, BC5; 1974)

크레온이 오이디프스왕 자신이 테베가 키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더러운(unclean)” 인간이기 때문에 추방해야 테베가 파괴되지 않으며, 생존할수 있음을 오이디프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물론 오이디프스가 이러한 테베의 이야기를 받아드릴 수밖에 없는 역사적 비극이 이 극의 주제이다. 그러나 오이디프스왕의 제 2편, “콜로너스의 오이디프스(Oedipus at Colonus)”에서 오이디프스가 하는 이야기는 앞에 제시된 오이디프스의 두가지 범주의 이야기이다. 이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오이디프스의 2가지 부도덕, 즉 어머니와의 결혼과 아버지를 죽이는 행위에 대해서 오이디프스는 이야기한다. 오이디프스는 자신이 어머니와 결혼했다는 사실에 대한 테베의 심판은 “가장 악랄한 不義 (Foulest injustice)”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은 이를 견디었다고 독백한다.

그리고 자신이 어머니와 결혼한 행위는 "자신의 선택이 아니었음을 신이 알고 있다 (God knows Nothing was of my choosing.)"고 이야기한다. 사실이다. 테베가 그 당시 가장 필요로 했던 생존의 자본, 즉 지식과 능력을 오이디프스만이 가지고 있었음은, 오이디프스만이 스팅크스의 수수께끼를 풀어낸 상징적인 이벤트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테베의 생존을 위해서 크레온은 자신의 누이인 요카스터(Yocaster)에게 젊은 오이디프스를 결혼 시키는 것이다. 결코 오이디프스의 선택은 아니었다. 윤현섭(2001-a)은 그러나 다음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오이디프스는 자신이 테베에 대해서 행할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 있었다. 즉 테베의 왕이 되어주기를 원한 테베를, 즉 크레온의 요청을 거절할수도 있었다. 그러나 오이디프스는 부모에게 두 번 버림받은 남성으로 방랑의 길에서 자신이 사회적 기회와 자본을 성취할수 있는 테베의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거절할수 없었던 인간 남성으로서의 고민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인간고민은 부도덕으로 왜곡하면서, 테베의 불운이 오이디프스의 인간적 고민이 원인이라는 정치적 폭력으로 오이디프스를 테베에서 추방하는 것이다. 그러나 오이디프스는 추방당하는 그 순간부터 분명히 알고 있었다. 테베를 삼키기 위한 크레온과 테레시아스(예언자)의 정치적 음모와 불의로 자신은 테베를 떠나야만 하는 선택 이외에,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없었음을 알고 있었다. 또한 오이디프스가 아버지를 살해한 비극적 이벤트에 대해서 오이디프스는 피나는 고통의 이야기를 한다. 정의(justice)에 의해서 자신은 라이우스를 살해한 것이며, 내가 죽인 그 인간이 나를 먼저 죽이려고 하였다. 즉 자신은 법에 의해서 죄가 없음이 증명되며, 자신이 알지 못하는(as ignorant of

what I did) 행위에 대해서 불의의 심판을 받은 것이라는 오이디프스의 자아의 외침이다. 즉 오이디프스는 "나"에 대한 의무를 지키며, "자아"를 표현한 것이다.

필자의 분석으로 앞에서 제시한 "창조"와 "전진운동"의 오이디프스는 법과 도덕, 그리고 정의의 논리로 결코 패배한 인간이 아니었다. 왜냐면, 가장 탁월한 지성으로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스팅크스의 문제를 풀면서, 오이디프스는 창조의 단계를 완성한 인간이었으며, 그러한 완벽한 능력으로 퇴행이나 좌절은 없는 영원한 전진운동을 할수 있는 유일한 테베의 인간이 었다. 따라서 자신의 선택이 아닌 결정, 그리고 자신이 인지하지 못한, 그러나 자신에 대한 정당방위를 선택한 오이디프스를 "더러운(unclean)"인간으로 심판하며 추방한 마키아벨리적 인간이 크레온과 테레시아스이다. 이는 크레온 자신이 테베의 왕이 되기 위한 가장 더러운 크레온 자신의 생존의 전략이었다. 후에 "안티고네"에서 크레온 자신이 테베의 왕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오이디프스는 마지막으로 선택했다. 크레온이 테베의 재난을 풀기 위해서 오이디프스에게 다시 테베로 돌아오기를 간청 했을때, 오이디프스는 단호히 거절한다. 이는 오이디프스의 자유인으로서의 자아의 표현이다.

크레온 : To persuade this man to return to  
Theban land.

오이디프스 : You shall not have your wish!  
This you shall have;  
My everlasting curse upon your country!  
.....  
Go away,  
And I'll go mine; hard as it is, I

choose it,

And I could be content.

(콜로너스의 오이디프스, p.93; p.95: Sophocles, BC5; 1974)

테베에 대한 영원한 저주, 그리고 크레온에 대한 엄중한 거절! 오이디프스 자신(the self)의 선택이며, 자신은 만족한다는 오이디프스의 이야기! 이는 테베, 그리고 동시에 고대로 부터 현대까지 인간의 부도덕한 모든 정치적 음모를 이야기하는 그리스 모형언어이다.

엘렉트라의 그리스 정신 역시 분명하다. 어머니 클라이넴네스트라가 자신의 남편 아가멤논을 도끼로 친 것은 “정의가 아닌(..not for justice)”, “천한 비열한 놈(a base wretch)”에 대한 성도착적인 끌림(..perverted by the lure of a base wretch...)”이라는 표현이다. 즉 엘렉트라 자신은 “base(천한)“ 남편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표현, 그리고 “..perverted(성도착적으로)“라는 표현은 엘렉트라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그리스적 도덕관을 이야기한다. 프로이드는 이러한 엘렉트라가 자신의 무의식으로 움직이는 성적인 욕구에 대한 반대적 표현이라는 이야기를 한다. 즉 엘렉트라 자신이 천한 섹스에 무의식적으로 끌리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다른 해석을 한다. 특히 엘렉트라의 이야기-II에서 “두번쳐라(Strike twice!)”라는 언어는 엘렉트라의 보다 자아존중적 생존의 원함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즉 생존을 위한 두가지 원함, 자본과 기회가 역시 여성인, 자신의 어머니가 부도덕한 남성과의 결탁으로 박탈당했다는 분노가 보다 강렬한 사실인 것이다.

엘렉트라: Do not instruct me to be treacherous.

크리소테미스: I do not; but to yield to those

who govern.

엘렉트라 : Well, gloze it so; you do not speak my language.

(엘렉트라, p.14; Sophocles, BC5; 1995)

엘렉트라의 여동생 크리소테미스가 엘렉트라에게 “지배자에게 머리숙일것(to yield to those who govern)”을 이야기하자, 엘렉트라는 “교묘한 부도덕한 언어(‘gloze’)”로 발뺌을 하는 여동생에게 “너는 나의 언어로 이야기 하지 않는다(you do not speak my language)”라고 이야기 하면서, 강한자에게 머리숙이라는 동생의 애걸을 거절한다. 반면, 크리소테미스는 강한자/지배자에게 머리를 숙이면서 생물학적 수준의 생존 기회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엘렉트라는 이를 거절하는 것이다. 자신의 생존의 기회와 자본을 다시 찾기 위해서 엘렉트라 자신은 철저히 1:1의 처벌을 선택하는 것이다. “두번 쳐라(Strike twice!)”라는 엘렉트라의 언어는 자신의 삶의 기회와 자본을 착취한 여성, 즉 어머니에 대해서 구체적 처벌을 원하는 것이다. 필자는 프로이드적이 아닌 해석을 한다. 엘렉트라가 원했던 것은 아버지에게 리비도적 원함이 아니다. 엘렉트라가 원했던 것은 아버지가 왕으로 살아있었다면, 보호해주었고 보장에 줄수 있었던 엘렉트라의 삶의 기회와 자본이 었던것이다. 이러한 삶의 기회와 자본이 다른 여성, 즉 어머니가 “천한”남성과의 불륜으로 착취되고 박탈당한 자신의 고통이 “두번쳐라!” 하는 엘렉트라의 언어에 나타난다. 물론 크리소테미스처럼 더러운 권력으로 상징되는 인간들에게 머리숙이지 않으면서, 자신의 “자아”를 추구한 엘렉트라는 분명 쏘포클레스에게 매력있는 여성의 이미지 었음에 틀림이 없다. 동시에 엘렉트라는 현대적 인간 정신,

즉 “나”를 지키며 “자신”의 이미지를 창조하는 살아있는 인간인 것이다. 모든 그리스의 예술에서 지금 까지 변하지 않게 사랑받는 엘렉트라 언어는 21세기에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필자는 생존의 기회와 자본의 박탈을, “창조”와 “전진운동”의 표현이 박탈된 엘렉트라 이야기, 즉 엘렉트라의 “자기(the self)”라고 이야기 한다.

### 엘렉트라-오이디프스 이야기의 인지적 법칙: 수학적 모형

쑤포클레스의 비극의 언어는 희랍어를 직접 분석을 해야함이 타당하지만, 유감히도 필자는 희랍어를 아직 익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로 번역된 도서를 중심으로 언어분석은 영어로 표현된 어휘를 샘플로 하였다. 그러므로, 희랍어가 아닌 영어로 분석을 시도하는 이상, 쑤포클레스 언어의 의미를 분석함이 보다 타당하다. 필자는 오이디프스의 언어의 두가지 범주, 즉 “unbeknown”과 “He whom I killed had sought to kill me first.”mf 채택하며, 이에 비교되는 엘렉트라 언어는, “..perverted by he lure of a base wretch..”와 “If thou beest a man, Strike twice!”를 택한다. 수학적으로 필자의 조작적 4 단계 운동법칙으로 다음과 같은 분석을 제시 한다:

서구의 사회과학은 자본주의 발전 모형으로 모델이 되는 발전의 이론모형은 직선적 상승(the linear progression) 이다. 즉 X축에서 Y축과 사이에 45도 각도로 직선적인 상승을 하는 모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과학에서 이러한 직선적 모형(the linear model)에 회의를 나타내는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다. 필자도 한국과 미국 그리고 북한간의 평화회담의 변화 발전을 수학적으로 검증한 결과 곡선적 모형(the curvilinear model)이 보다 타당한 모델로 검증이 되었다.(윤현섭, 1999-b; 2001-b; 2003) 위의 오이디프스와 엘렉트라의 자아의 발전도 역시 곡선적 모형이 더욱 타당함을 암시하고 있다. 언어적 차원에서 오이디프스가 외친 표현, “unbeknown(알지 못하고)”은 자신의 결혼이 결코 의도적인 야망적인 결혼이 아니며, 자신은 결백하다는 언어는, 필자의 분석이론으로 오이디프스 자신은 2단계에서 왕인 아버지로 부터 추방당한 가장 억압받은 인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자신의 생모가 누구 인지를 모르고, 자신의 능력의 승리, 즉 스펡크스의 문제를 해결한 성취로 인한 결혼은 사회적으로 성취인 것이다. 필자의 운동곡선(the curve of motion)으로는 U-곡선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필자는 이러한 곡선을 잠정적으로 “the Quadric Curve(3차 곡선)”으로 정의한다. 3차 곡선은 4단계이후 다시 한번 꺾이는 운동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오이디프

오이디프스의 모형	이론모형	엘렉트라의 모형
1 단계 : 왕자 : (4)	(4)	1 단계 : 공주 : (4)
2 단계 : 왕인 父로부터 추방됨 : (0)	(8)	2 단계 : 母에게 저항 : (8)
3 단계 : 스펡크스의 문제해결 : (12)	(12)	3 단계 : 오레스터스 귀환 : (0)
4 단계 : 제관과 母와 결혼 : (16)	(16)	4 단계 : 母를 처벌 : (16)

스는 부당한 정치적 심판으로 인해 장님이 되어 테베를 떠나는 운명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엘렉트라 역시 유사한 U-곡선으로 나타난다. 이상적인 자본주의 운동 곡선의 수학적 값은 정비례적 증가를 나타내는 이론모형으로, 수학적 증가를 나타내는 모형은 45도각도의 직선적 상승이다. 그러나 오이디프스와 엘렉트라 모두에게 이러한 직선적 운동 곡선은 그들의 자아의 발달에 나타나고 있지 않다.

오이디프스의 “unknown(모르고)”라는 언어는 2단계에 영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왜냐면 토대운동을 할수 있는 여지가 없도록 테베와 부모로부터 추방된 왕자가 오이디프스라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왕궁에서 추방된 엘렉트라는 어머니와 범죄적 권력에 굴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8점을 받는 토대운동을 한다. 그러나 어머니를 칼로 “두번 쳐라!”하는 외침을 하지만, 어머니를 처벌하는 인간은 엘렉트라가 아닌 남동생 오레스터스이기 때문에, 3단계(창조)에서는 영점은 받을 수밖에 없다. 필자의 이러한 개념적 수학의 분석은, 사고의 분석이지만, 그 이론적 계산이 추론적으로 설득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분석이다. 동시에 “자신이 죽인 인간이 먼저 자신을 죽이려고 했다”는 정당방위적 언어는 스펅크스의 문제해결의 기회를 부여한 결정적 사건이다. 즉 생존을 위한 기회를 오이디프스가 얻은 것이지만, 정치적으로는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후 만든 기회인 것이라는 결과론적 해석으로, 이러한 오이디프스를 테베는 추락시키는 것이다. 이에대한 심판으로 다시 테베가 테베의 생존을 위해서 오이디프스를 원할때, 오이디프스는 “나의 영원한 저주를 테베에게 보낸다”라고 내뱉으며, 테베로 돌아가기를 거절하는 것이다. 오이디프스의 이러한 거절은, 다시금 자신의

능력을 착취하는 우둔한 집단위에 군림하기를 거절하기 때문인 것이다.

생존의 원함은 기회와 자본을 필요로한다. 오이디프스는 그러한 생존의 기회를 만들어서 자신과 테베를 생존하도록 하였다. 테베는 자신이 다시금 생존이 위협할 때, 오이디프스와 함께 그들 테베의 생존의 기회와 자본을 다시 얻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이디프스를 부당한 부자의 존재로 심판하며, 추방하는 마르크스적인 정치를 하였다. 엘렉트라는 자신의 2W, 즉 기회와 자본을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살해된후 잃어 버린다. 그러나 그녀의 원함, 즉 생존을 위한 기회와 자본을 다시 찾으려고 동생 오레스터스를 기다리는 끊임진 여성의 생존력으로 결국 자신의 원함을 얻는다. 어머니를 “두번 쳐라(칼로!)”하는 엘렉트라의 언어는 모든 여성의 한 맺힌 승리의 절규가 아닌가 한다. 정신분석적으로 남성인 오레스터스에 의존한 엘렉트라를 리비도차원의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필자는 엘렉트라의 꺾이지 않았던 의지, 즉 부도덕한 계부와 어머니를 처벌하려고 했던 굽히지 않았던 철의 의지는 자아충족적, 그리고 자아독립적 여성의 “나”와 “자아”의 생명을 말한다고 이야기한다.

## 결 론

여성의 원함, 생존을 위한 기회와 자본, 즉 2W는 결코 엘렉트라와 같은 곡선을 따라서 21세기 여성이 예외 없이 걸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여성은 자신의 삶을 위한 기회와 자본을 스스로 창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의 취업이 사회적 문제가 된다. 특히 남성과 차별대우 없는 여성의 고용기회

창출이라는 사회경제적 문제는 범세계적 문제이다(Geary, 1999). 동시에 여성에게 삶의 기회와 자원을 찾아서 줄수 있는 여성의 교육의 문제도 심각한 문제이다. 그러나 다음이 중요하다. 각각의 여성은 자신의 삶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한 여성의 삶의 이미지는 엘렉트라와 이미지와는 다르다. 그러나 여성이 자신의 삶을 위한 기회와 자원을 얻으려 할때, 원칙적으로 따르게 되는 발전과 변화의 6단계 범주, 그리고 4단계 조작적 범주는 유용한 이론적 모형이 된다고 필자는 이야기한다. 다음의 자리에서 증명의 결과를 제시하려고 한다. 육체적 키크기로 시작해서 조화된 자아완성을 위한, 시작에서 완성이 있는 발전적 노력을 해야하는 21세기에는, 엘렉트라와 의지와 같이 불륜과 범죄적 권력에 무릎을 꿇지 않는 여성의 이미지를 다시 회상해 보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 윤현섭 (1993) 법 심리학. 학지사.
- 윤현섭 (1994) 언어심리학. 박영사.
- 윤현섭 (1996) 정신생활과 건강. 배영사.
- 윤현섭 (1997) 추상미술과 知의 자아. 인간사랑.
- 윤현섭 (1998) “운동과 평화의 언어심리학적 분석”.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년차대회 발표논문.
- 윤현섭 (1999-a) “운동과 평화의 인지적 연구”.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년차대회 발표논문.
- 윤현섭 (1999-b) “Peace Intelligence and Human Conflicts.” The Peace Science Society 년차대회 발표논문. University of Michigan, US, October 8-10, USA.
- 윤현섭 (2001-a) 희랍미학과 정신분석. 지선사.
- 윤현섭 (2001-b) “Relational Algorithms of Peace Talks of Korea with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he Peace Science Society 년차대회 발표 논문, Amory University, October 27-29, USA.
- 윤현섭 (2002) www.motion64.com
- 윤현섭 (2003) “Algorithmic Sequences of Military Conflicts; The US-Iraque and North Korea.” The Peace Science Society 년차대회 발표논문, University of Michigan, November 14-16, USA.
- Geary, D. C. (1999) Male, Femal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U.S.A.
- Hare-Mustin, & Marecl, J. (1998) “The Meaning of Difference: Gender Theory, Postmodernism, and Psychology”, In the Gender and Psychology, Clinchy, B.J. & Norem, J.K. (Eds.), New York University Press, U.S.A.
- Hein, H. & Korsmeyer, C. (1993), Aesthetics in Feminist Perspective. Indiana University Press, Bloomington 과 Indianapolis, U.S.A.
- Kant, I. (1774-1804; 1965) Observation on the Feeling of the Beautiful and Sublime. Translated by John T. Goldthwait,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Kant, I. (1774-1804; 1998) Critique of Pure Reas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lato (BC5; 1993) Republic.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ophocles (BC5; 1974) Oedipus at Colonus. Penguin Classics.
- Sophocles (BC5; 1995) Electra. Dover Thrift Edition.

## **Women's Want and its Symbolic Language: Analysis of Cognitive Model**

**Hyun Sub Yun, Ph.D.**

**Department of Psychology, Kangwon National University**

All humans have its Want. Women also have its Want: They are the opportunity and resource for life, namely 2W. Oedipus and Electra who are the Greek tragic Selvs who struggled for its achievement for the 2W. Curvilinear rather Linear Model for the Self development is suggested. The women in the 21C may not follow the Electra Curve, but what is concluded is that women must earn its 2W with its own labour and merits, and not by the aid from any other-oriented figures.

*key words : Mathematical curve of Women's Want*